폐기물 중간 처리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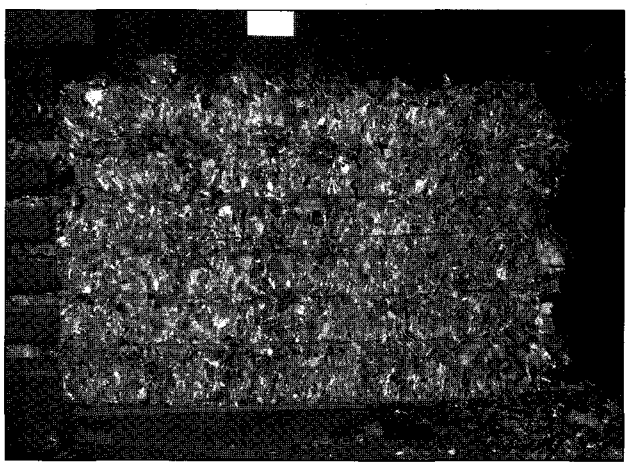
자원 재활용 친환경 사업 자부심

안 영 만
(주)오성자원 대표이사

21세기의 최대화두로 '환경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각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폐기물의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1993년을 정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1990년대에 들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사업장폐기물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를 제정,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질을 개선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문제가 기업의 주요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압축된 재활용 폐기물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주)오성자원

폐기물을 그저 '쓰레기'로만 인식해 '버려지는 것'으로 간주, 매립 소각했던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탈피,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자부심으로 고갈자원을 수집, 재생하고 있는 (주)오성자원(대표이사 안영만)을 찾았다.

1995년 9월 개인사업체로 설립된 오성자원은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이다.

오성자원은 1996년 4월 공장을 등록하고 1998년 1월 (주)오성자원으로 법인을 등록, 그 해 11월 소음 및 진동 배출 시설설치를 신고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획득했다.

이후 현재까지 사업장 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에 대한 허가와,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획득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오성자원은 폐기물의 재활용과 실용화를 통해 자원손실을 막고 "친환경산업을 실천한다"는 자부심으로 안영만 사장을 비롯, 50여명의 직원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주)오성자원은 백화점, 할인점을 중심으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일반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통합 처리하고 있으며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합성섬유류, 폐피혁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150마력의 파쇄기를 비롯해, 압축기, 절단기, 지게차, 압롤트럭 등을 보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는 드물게 각종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수도권내 유일한 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업체이다.

(주)오성자원으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은 1차 분리작업 후 컨베어로 이동시키고, 2차 선별과정을 통해 성상별로 분리된다.

분리 후 가연성 폐기물은 1

OhSung

차, 2차 파쇄 후 압축기로 이동되며 규격화된 크기로 압축 후 연료로 납품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대부분 소각되던 그라비어 인쇄 폐기물의 경우 오성자원은 이를 대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 분쇄를 거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오성자원은 직접 장비, 차량,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비용과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점에서 여타 폐기물 처리기업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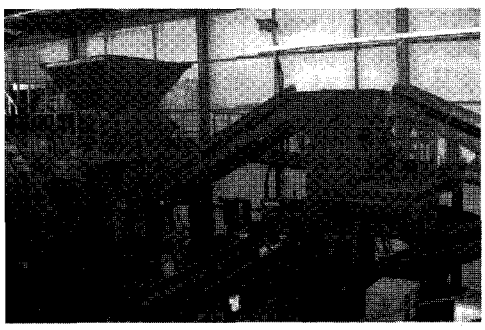
따라서 중간마진이 없어져 Kg당 매입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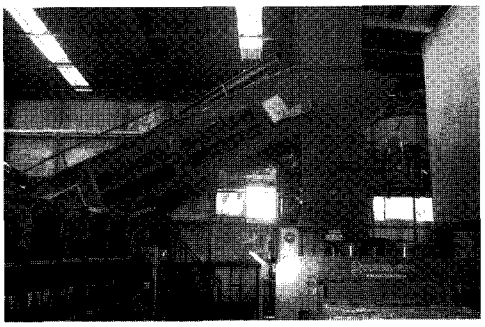
안영만 사장은 "(주)오성자원을 운영하는 경영방침은 오로지 하나, 바로 "약속을 잘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안 사장은 "허울과 형식으로 과대 포장된 많은 업체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계약과 파기속에서 약속의 소중함을 무색케하는 행동들로 실망과 회의를 주고 있다"며 "기업의 목표라는 것이 '이윤 획득'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고객과 마진(margin)얘기까지 나눌 수 있을만큼 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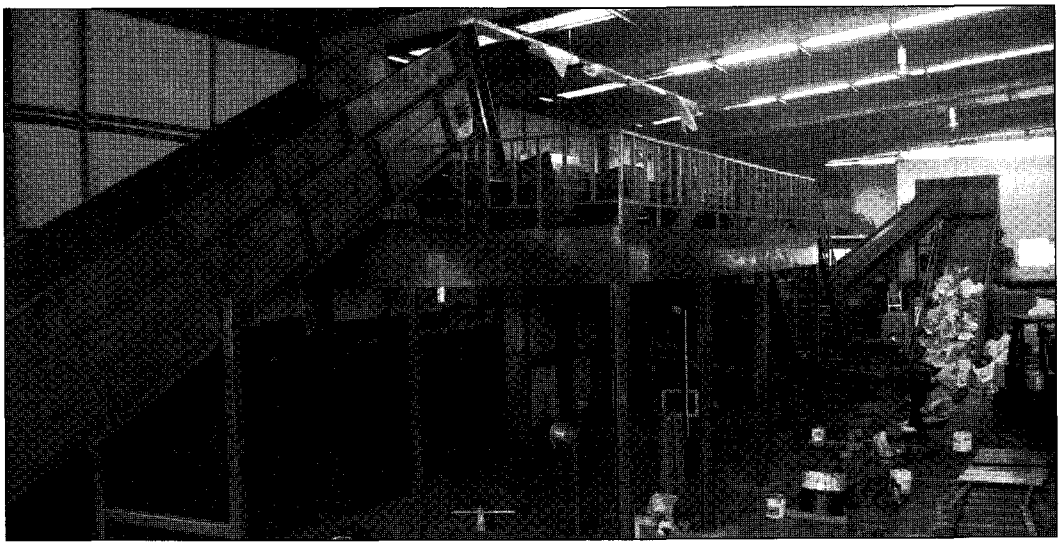
(주)오성자원은 지난해 11월 폐기물 처리업종 업체로는 최초로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가 되었다.

포장협회 회원사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싶다는





▲ (주)오성자원의 파쇄기(좌)와 압축기(우)



▲ (주)오성자원의 선별라인

안영만 사장은 오성자원이 폐기물 재활용 회사로 거듭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 회원사간 활발환 관계가 되길 바라는 한편, 포장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력하나마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전했다.

안 사장은 "폐기물처리는 3자, 즉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간의 계약이므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시장에는 편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용하는 업체가 즐비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오성자원의 연 매출액은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약 40억원. 그러나 현재 거래처의 물품이 많지 않아, 거래처를 통한 물량확보로 월 2,000톤 달성을 올해 작업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다"는 생각으로 (주)오성자원을 이끌고 있다는 안영만 사장은 '환경' 뿐만이 아닌 '사회복지'에도 앞장서는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플라스틱, 병, 양은, 목재를 팔아 기금을 마련,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쌀을 전달하는 등 보이지 않는 미덕을 실천하고 있는 것.

또한 실제로 (주)오성자원의 직원들 가운데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비롯해, 장애우들도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21세기 전 세계적인 목표를 실천하는 기업, (주)오성자원의 미래는 밝다. ko

박초혜 기자